

英매체 '코로나19 격리위반' 베스트11 선정...토트넘 4명

등록 2020.04.24 09:07:20



[사우샘프턴=AP/뉴스시스]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2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사우샘프턴과의 2019~2020 EPL 21라운드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토트넘이 0-1로 패했다.

[서울=뉴스시스] 안경남 기자 = 영국 매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선수들로 베스트11을 선정했다.

영국 매체 더선은 23일(현지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선수들로 구성된 베스트11을 공개했다.

대부분이 토트넘 홋스퍼와 아스널 선수들로 구성됐다.

토트넘에선 무사 시소코, 라이언 세세농, 세르지 오리에가 이름을 올렸다. 감독으로 뽑힌 주제 무리뉴까지 총 4명이다.

이들은 앞서 무리뉴 감독의 지시 아래 공원에서 훈련을 진행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시소코와 오리에는 이후 한 차례 더 자가 격리를 위반해 사과하기도 했다.

아스널은 가장 많은 4명이 선정됐다. 아스널 출신이란 이유로 골키퍼에 이름을 올린 다비드 오스피나(나폴리)까지 포함하면 무려 5명이다.



[서울=뉴시스] EPL 코로나19 위반자 베스트11

니콜라스 페페, 알렉상드르 라카제트, 그라니트 샤카, 다비드 루이스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축구를 하다 비난을 받았다.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는 골키퍼 오스피나는 자주 공공장소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잭 그릴리쉬(아스톤빌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가 격리를 하자는 메시지를 남긴 뒤 1시간 만에 파티에 참여하려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밖에 후보로는 공원에서 축구를 한 메이슨 마운트(첼시), 데클런 라이스(웨스트햄) 등이 언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